

여름호 | 2017년 7월 18일

발행인 박권수 회장

편집인 오홍열, 이성운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전화 : 02)557-7351~2

팩스 : 02)554-7359

## <신임 박권수 회장 취임사>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제도, 택시 감차 문제는 재검토 추진할 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제 10대 회장으로서 첫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늘 성원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전국 시·도 조합 이사장님들과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연합회를 잘 이끌어 오신 유병우 회장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해주신 권병윤 실장님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 귀한 시간 내 주신 민주당 송영길 의원님, 민주당 전현희 의원님, 민주당 최인호 의원님, 민주당 안호영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복규 전국법인택시연합회장님을 비롯한 각 교통단체 회장님 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연합회 회장 취임이라는 기쁨보다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께서 제게 부여하신 막중한 소명에 두려움이 더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개인택시업계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의 근본적인 이

유를 제쳐두더라도 무분별한 택시증차 및 대리운전, 불법적인 택시유사영업행위의 확산은 지속적으로 택시 영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확충과 버스 환승체계와 같은 대중교통 우선정책은 필연적으로 택시 승객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러한 택시 시장은 현재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준대중교통수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결국 택시가 오늘날 어려워진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원인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지금 택시환승제가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나 이는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사업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서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택시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전국 시·도 이사장님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택시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 및 제도도 적극 찾아내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각 지역별 주요현안을 파악하여 연합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의 주요 정책은 계획단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공감대가 먼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합회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시·도 이사장님들과 16만 사업자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정부 당국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도의 도입은 빠듯한 수입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더욱 옥죄는 결과만 초래 할 것입니다. 택시 감차 또한 지금의 방법으로는 감차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와 택시감차는 재검토는 물론 반드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 점 충분히 살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 회장은 우선적으로 택시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전국 시·도 이사장님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약속했다.

존경하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앞으로 저는 전국시도 이사장님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직 16만 우리 개인택시사업자들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게 주신 막중한 소임을 완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하루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신용대출보다 더 우대받는 대출은 없을까?  
**현대캐피탈 자동차담보대출이라면 신용대출보다  
평균 8.6%p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고한도 5,000만원** + **최저금리 연 5.5%** + **각종 수수료 면제**



### 상품안내

- 전화 한 통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
- 차량담보가치를 활용한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
- 한도 : 최저 300만원~최고 5,000만원
- 금리 : 5.5~19.9%(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 기간 : 12/24/36/48개월 중 택일
- 근저당 비용 : 없음
- 취급·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 연체 이자율 : 17.9~27.9% (고객·기간별 차등 적용)

### 혜택

- 개인택시 기사님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
- 방문 없이 전화로 대출 가능

### 대상고객 및 차종

- 운행 이력 1년 이상의 개인택시 사업자
- 출고 이후 10년 이내의 본인 소유 택시
- 기타 본인 소유 차량 담보 가능 (승용, RV, 승합, 상용 등)
- 설정 및 압류 차량인 경우, 해지 후 대출 가능

### 이용방법

- 현대캐피탈 전화상담 : 1899-6282 (전문상담원 상담 시 전국 개인택시 공제 조합원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대상고객, 차종,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
- 차량 근저당 설정 후 대출금 송금 가능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2016-L1b-02128호(2016. 12. 01~2017. 11. 30)

※ 신용대출 금리 비교 예시 : 2016년 7월, 자사 신용대출 금리 기준(신용등급 1~3등급 이내 우량직장인 적용 금리)  
※ 일부 고객의 경우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정책 NEWS

# 박권수 제10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성황리에 취임식 갖고 연합회 추진 방향 제시

## 내·외빈 축하 속에 진행, 취임사 통해 개인택시 업권 보호 다짐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2017년 7월 11일 12시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200여명의 내·외빈의 축하 속에서 성대하게 진행 되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서는 권병윤 교통물류실장이 참석 하였으며 송영길 의원, 전현희 의원, 최인호 의원, 안호영 의원이 참석 하였다.

박권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우선적으로 택시 승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전국 시·도 이사장들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말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 개인택시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 및 제도도 적극 찾아내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각 지역별 주요현안을 파악하여 연합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제도의 도입은 빠른 수입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우리 16만 4천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더욱 옥죄는 결과만 초래 할 것이라며, 택시 감차 또한 지금의 방법으로는 감차효과를 기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고령자 자격유지검사와 택시감차는 재검



▲ 취임식을 마치고 최인호 국회의원과 권병윤 국토부 물류실장, 전국 16개 시·도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힘찬 화이팅을 외쳤다.

토는 물론 반드시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 하였다.

권병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축사를 통해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내빈께도 감사드립니다. 최인호 국토교통위원장께도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전국 시·도 이사장의 추대로 당선된 만큼 박권수 회장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덕담

하였다.

송영길 의원은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을 직접 뵈게 돼서 감사드린다고 인사 하고 박권수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격유지검사제 도입은 원만히 해결 되도록 조만간 김현미 장관과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전현희 의원은 박권수 신임 개인택시연합회 취임을 축하드리고, 택시 산업 발전

에 기대가 크다며, 종사자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국토교통위에서 택시현안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국토교통위원회 분위기를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 출신 이기도 한 박권수 회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박 회장이 주장한 현안문제는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며 교통물류실장과 잘 협력해서 해결 하겠다고 하였다.



## 酒유 하셨습니까?

### 술 취한 자동차는 도로 위의 흉기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100명 중 13명, 한해 500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가법계 마신 술 한잔에 잡은 운전대는 당신을 살인자로 몰고 갑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인 동시에 자살행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 서울조합 이연수 이사장, 서울시 김종욱 정무부시장 만나 업계 활성화 방안 건의

다양한 요금제도의 시계외자동요금할증시스템 도입 건의  
CCTV 주정차 시간 5분 완화 요구



▲ 이연수 이사장이 서울시 김종욱 정무부시장을 만나 업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건의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은 지난 4월 10일에 이어 또다시 5월 24일 서울시 정무부시장실에서 김종욱 정무부시장을 만나 개인택시업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건의하였다.

이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은 2013년 10

월 요금인상을 마지막으로 금년이 4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요금 조정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요금을 비롯해 그동안 우리 택시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제도(탄력요금, 앱 호출시이동거리 및 시간요금, 심야할증시간 적용 조정, 동승 및 합승)와 시계외자동

할증시스템 도입은 물론 대중교통요금과 택시요금의 일률적 인상 정례화를 건의하였다.

또한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성남·광명·안양·고양·인천 등 서울시 인접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타도영업,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소극적인바, 서울시 교통반원들의 근무형태를 타 시·도 택시의 불법영업행위, 불법대리운전,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불법셔틀버스 강력 단속으로 전환하여 서울시 내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서울택시의 정당한 영업행위를 보장해 줄 것을 지적하였다.

CCTV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는 일반 자가용과는 달리 택시는 승객 대부분이 원하는 장소에 하차를 희망함에 따라 이러한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택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단속시간 완화(1분→5분) 및 단속유예를 건의하였다. 또한 승객이 승차한 택시에 한하여 버스전용차로 가로변차선 통행 허용과 함께 백화점등 혼잡지역에 임시 승차대 설치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현재 약 7만2천여 대에 이르는 서울택시는 서울시민의 대표적 이동수단임에도 서울시의 택시정책 결정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마땅한 제도나 기구가 부족하여 현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정책이 발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서울시와 업계 간 별도의 '택시발전을 위한 TF 구성'을 적극 건의하였다.

##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의견

### 서울조합 이연수 이사장 송영길 의원 찾아 건의

본제도 도입의 부당성  
강력히 건의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은 6월 15일 김영식 경기도조합 이사장과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장을 방문하여 김현미 장관 후보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또한 의원회관으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을 방문해 송영길 의원과 '65세이상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은 컴퓨터 게임같은 택시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나이드신 분들께서는 운전능력 여부를 떠나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제도임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본제도 도입의 부당성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송영길 의원은 본제도 도입에 대해 업계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이 6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나 '65세이상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부당성을 건의하고 있다.

## ★ 인물 탐구 제 10대 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

# 성실, 치밀함 타고난 성격에 강한 추진력 겸비 성공 사례 준비한 부산 조합 7년 경영 실적

## 16만 조합원 위한 강한 연합회 실현할 구원투수

좀 오래된 영화다.

다큐멘터리 '위낭소리'라는 영화가 관객을 감동시킨 것은 팔순 농부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린 점도 있지만 이름 없는 주인공 황소가 40여년 동안 팔순 노인과 동거동락 하며 우직하게 살아온 여정을 담아낸 점이 더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근면, 성실, 우직함이 상징인 황소-. 그런 황소같은 연합회 경영자가 위기의 개인택시 경영난을 타개하기위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무투표 당선의 진기록으로 10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권수 회장이다.

박권수 회장은 1983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 부산 조합에서 평범한 조합원의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성실하고 치밀한 성격에다 추진력까지 갖춘 박 조합원을 평범하게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주변으로부터 쉽게 능력을 인정받아 1만명이 넘는 부산조합에서 이사·감사·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요직을 거치면서 일찌감치 조합경영에 참여하게 된다.

작달막한 키에 보통 체구인 박 회장은 외모로는 힘센 황소를 닮지 않았지만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영락없이 황소이다.

3선을 한 유병우 회장의 9대 임기가 6월 30일로 다가오자 '연합회를 변화시켜 위기를 극복해야한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주도면밀하게 회장출마를 선포하고 선거판세를 자신에게 끌어 당기는 역량을 발휘한다.

냉랭하던 회장 선거 분위기는 박권수 회장의 무투표 당선으로 기울어졌다.

매사에 치밀하고 강한 추진력을 갖춘 박권수 회장은 회

장선거를 치루면서 선거인단 숫자가 자신을 포함한 16명 밖에 되지 않는데도 회장으로 공약사항을 홍보물로 만들어 선거인단에 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철저한 완벽주의자다.

박권수 회장은 자신이 제작한 홍보물에서 스스로를 '신뢰와 정직의 사람'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회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3가지로 밝혔다.

▲ 무분별한 택시증차·자가용 증가·대중교통우선 정부 정책 등으로 택시 승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 대리운전과 렌트카의 성업, 모바일앱 기반의 택시유사업업행위 확산으로 택시의 영업환경은 축소되고 있고

▲ 정부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으로 개인택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예리하게 분석을 하고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박권수가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호와 업권 수호를 위해 회장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동기 있고 대담하게 출사표를 던질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다.

### ◆ 선거공약에도 치밀한 실천의지 묻어나

박 회장은 '위기의 개인택시'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은 계 획 단 계 서부터 연합회 운영 주체인 시·도조합 이사장의 의견을 물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조성한 후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시·도조합을 방문,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연합회가 시·도조



제 10대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박권수 회장

## 박권수 회장 프로필

### 학력

- 부산동의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글로벌 정책 전공) 석사과정 수료
- 석사논문:개인택시 공급의 문제점과 발전에 관한 연구

### 경력

- 前 부산개인택시 새마을금고 제4대 이사장 (2002.12.8)
- 前 부산개인택시조합 제 13대 이사장 (2010.7.1)
- 前 전국개인택시연합회 부회장 (2013.7.1)
- 前 부산개인택시조합 제 14대 이사장 (2014.7.1)
-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제 10대 회장 (2017.7.1)

### 수상내역

- 부산지방경찰청장 표창장 (1993.5.20)
- 건설교통부장관 표창장 (1995.11.14)
- 부산광역시시장 표창장 (1999.1.29)
- 경찰청장 감사장 (1999.10.8)
- 부산새마을금고 연합회 표창장 (2005.4.18)
- 국무총리 표창장 (부산개인택시 새마을금고 단체표창) (2005.5.25.)
- 제28회 육운의 날 정부 산업포장 수상 (2014.11.14.)

합별로 현안을 파악하여 연합회 차원의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담아 향후 연합회가 적지 않은 변화를 할 것을 예고했다.

두 번째 공약에서는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제도를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고령운전자 자격유지제도는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인택시의 존립하는 근간을 흔드는 나쁜 제도이기 때문에 연합회를 비상체제로 전환 운영해 단호히 무산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세 번째로는 택시 감차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와 특단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택시 감차에 따른 업계 출연금 최소화를 위해 국비와 시비를 대당 1300만원씩 증액하고 개인택시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에 연합회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하고 감차 비용 절감 및 감차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인택시 위주의 감차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네 번째로는 택시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연합회에 T/F팀을 만들어 택시 신규 고객 창출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연합회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과 택시 교통간 환승제 도입  
▲ 농·어촌 지역 100원 택시 확대 ▲ 전국 개인택시 호출 전용 모바일 앱 개발도 서두르겠다고 공약 홍보물에서 밝혔다.

“  
작달막한 키에 보통 체구인 박 회장은 외모로는 힘센 황소를 닮지 않았지만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행동은 영락없이 황소이다  
”

이 밖에도 택시요금 조정주기 정례화 및 요금 조정 절차 간소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정부 및 지자체간 택시 정책을 수립할 때 개인택시 위주의 택시 정책이 마련되도록 연합회-시·도조합-시군지부가 연계하는 공약까지 다양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박권수 회장은 선거 홍보물을 통해 좋은 공약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다짐, 자신이 야말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 경영의 귀재 재능 갖춰

박 이사장은 늦깎이로 부산대학교 경제통상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면서 석사 학위 논문 제목을 ‘개인택시 공급의 문제점과 발전에 관한 연구’로 정할 만큼 개인택시업계 현안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학구파 경영자다.

부지런함으로 책을 놓지 않고 공부하는 열정 때문에 1

년이면 40여차례씩 하는 조합보수교육도 직접하면서 안전운전교육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일깨워 준다.

한차례에 500명씩 모아 놓고 보수교육으로 조합원과 소통하다보니 사분오열돼 있는 조합원 화합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 13대 이사장에 취임, 고소 고발로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부산 조합을 맡게 된 박 이사장은 자신이 먼저 정직하고 깨끗해져야겠다고 다짐하고 취임사를 마치고 이사장실로 돌아와 ‘공정무사하면 일처리가 밝아지고 청렴 결백하면 권위가 선다’는 액자를 걸어놓고 ‘새로운 조합’, ‘깨끗한 조합’, ‘오직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박 회장은 임원회의를 주재할 때는 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필요할 때는 과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하려는 외유내강의 실천력 경영자다.

또한 직원들에게는 맡은 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책임과 동시에 권한을 부여하여 높은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다독이는 리더십이었고 박 이사장은 7년동안 지켜본 부산조합 김동현 기획팀장은 말한다.

기자는 박권수 회장에 대한 철저한 인물탐구를 하기 위해 부산조합 제 14대 이사장 선거에 무투표로 당선시킨 부산조합 조합원들을 무작위로 만났다.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말보다 행동이 앞서서 사람’ ‘성실하고 능력있는 경영자’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라고

놀라운 평가를 한다.

그러면서 전국 개인택시 업계 최초로 부산조합이 개별가맹점을 떠나 연간 20억원 이상 카드수수료를 절감시켜 주었고 임기 중에 충전소 3개소를 확충, 7개소로 늘려 조합원의 충전거리를 좁혀 1만 3000여 조합원이 조합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경영 성과를 열거하기도 한다.

보수교육을 통해 이사장과 소통했다는 부산 조합원들은 ‘사고 운전은 운전자가 먼저 부상을 당하고 사고처리 비용도 운전자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라고 강의하고 안전운전을 당부하면서도 ‘20여년 전 개인택시 수입은 대기업 과장 수준으로 대한민국 머느리들이 선호하는 시아버지 직업 1위 였는데 지금은 차를 바꿀 때가 되면 은근히 자식한테 손을 내밀고 할부금을 충당하기 위해 운전 시간을 2~3시간 늘리고 밤늦게 까지 술취한 손님, 막무가내로 욕부터 하는 손님들의 수발에 고초를 겪지만 손에 쥐는 수입은 손주들 용돈도 부족한 처지가 됐다’고 애통해 하던 박권수 이사장의 속상한 모습이 잊어지지 않는다고 기억하면서, 이제 개인택시 경영 조직 중 최고 위치인 전국 연합회장 자리에 우뚝 섰으니 ‘황소같이 척박한 땅을 갈아 엮고 새 생명을 일구는 삶의 연속’을 살아온 박 회장이 부산조합을 뛰어 넘는 똑심 경영으로 16만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운송여건 개선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1만4천 부산조합원은 합심으로 희망하고 있다.



▲ 박 회장은 부산조합 이사장 시절 부산 교통연수원에서 500명의 조합원을 모아놓고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보수교육을 1년에 40여차례 실시하고 친절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조합원 의식 개혁을 불어 넣는다.



▲ 6월 14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 10대 회장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부산조합 박권수 이사장이 서둘식 부회장으로부터 제 10대 회장 당선증을 받고 있다.

## 65세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집회 실시

총 8회 걸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



▲ 김영식 경기도 이사장은 도 조합 임원과 함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 도입을 규탄했다.

2017년 3월 8일, 9일, 10일, 14일, 15일, 16일, 17일, 20일 총 8회에 걸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맞은편에서 김영식 이사장, 도조합 직원 및 32개 시·군조합장, 대의원,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65세 자격유지검사 도입 반대 집회를 실시했다. 정부세종청사 집회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를 향의방문하고 택시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및 실무 주무관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우리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 간담회

4월 3일 경기도청 방문해 간담회 가져  
택시 결제 수수료 지원, 불법운송영업 단속 건의



▲ 김영식 경기 이사장은 도 조합 이사와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 남경필 도지사에게 업계 현안을 건의했다.

2017년 4월 3일 경기도조합 김영식 이사장 및 이사진들은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경기도지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이사장은 개인택시사업자의 택시 결제 수수료 지원, 불법운송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께서는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택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과 불법운송영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경기조합, 국토교통위 간사 이우현 국회의원 간담회

이우현 의원 “건의사항 적극 검토할 것”



▲ 경기도 사업 연합회는 이우현 국토위 간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2017년 4월 12일에 이우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합의 현안문제인 65세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도입과 관련하여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방안 철회와 자격유지검사제도를 시·도조합에 위탁하여 일정기간(5년) 자율적으로 자격유지 검사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업계 의견을 적극 건의했다. 이우현 의원은 65세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2020년까지 유보 시키는 한편, 경기도내에 만연하는 불법 여객운송 행위 집중단속·고속도로 택시 통행 허용 등 우리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 경기조합, 정기열 도의장과 간담회 갖고 현안 논의

경기도 전역에 특별단속반 설치 요청



▲ 경기조합은 정기열 경기도 의회 의장의 방문을 받고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를 건의했다.

개인택시 경기조합은 2017년 4월 26일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님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경기도 전역에서 자행되는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경기도 전지역내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설치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으로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정 의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등 조정 요령 개정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 여부를 2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인상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여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 “안전운행으로 행복한 광주 만들자” 사업용 운전자 결의 대회 마쳐

2017년 6월 19일 광주 북구 일곡동 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교통사고 감축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사업용 운전자 결의대회에 개인택시조합 이길로 이사장과 조합원 400여명이 함께 참석했다.

이 날 대회는 개인택시조합 외에 운장현 광주시장,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조합, 녹색어머니회, 안전학교 등 10개 기관·단체회원 5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결의대회에 이어 이길로 이사장과 참석자들은 교통안전을 다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담은 희망리본을 만들어 연수원의 '한세봉 갤러리'에 부착했다.

이처럼 광주 개인택시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준법운행과 노약자 배려,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시민이 감동하는 친절서비스 제공, 졸음운전 예방하기 등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운장현 광주시장·광주조합 이길로 이사장·검찰·경찰·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등 10개 단체 회원 참여



▲ 19일 광주 개인택시사업조합 이길로 이사장은 400여명 광주개인택시조합원과 '친절과 안전운행으로 행복한 광주를 만들자!'라는 결의대회를 하였다.



▲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의 '한세봉 갤러리'에 희망리본 메시지를 달고 교통기관단체와 기념촬영하는 이길로 이사장.

## 2017년 개인택시공제조합 광주지부 보수교육 성료

1979년 4월 1일 출범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광주지부는 합리적인 운영 및 대외 신뢰성을 바탕으로 성장하였으며, 효율적인 시스템 및 서비스로 올해까지 38년의 역사를 자랑한 만큼 자동차공제를 대표하는 공제조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 공제조합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바쁜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3,900여명 조합원님들의 도움으로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공제조합의 2007년부터 2016년말까지 누적 적자 2379백만원에 대한 공제운영현황 설명과 2017년 4월 1일 분담금인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광주지부 적자의 원인 분석과 당면 현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번 보수교육에 흔쾌히 참석해 주신 조합원님들의 헌신적인 성원과 협조 덕분에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원님, 공제조합은 우리 광주지부 계약자 4750명 조합원



▲ 2017년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공제조합 보수교육이 39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마쳤다.

의 운영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통사고를 내면 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없는 다른 조합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승객 감소에 따른 조합원님들의 운행 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차로변경사고, 승객 승·하차시 사고, 교차로사고, 후미추돌 사고 등 이러한 사고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집중하신다면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교통사고 예방만이 살 길이며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의식 변화에 대한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생각과 조직에 대한 애정, 소속감을 배가시켜 발전하는 공제조합, 변화하는 공제조합으로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알 림.

그동안 전국개인택시 연합회 신문 제작에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시·도 조합 홍보담당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합회 신문은 제 10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하신 박권수 회장님의 '오는 가을호 발행부터 시·도 조합 기사를 늘려 시·도 조합 소식을 폭 넓게 알리자'는 지시에 따라 시·도 조합 기사 지면을 증면할 계획입니다.

연합회 신문은 16만 조합원께 연합회 소식을 알리는 신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나 국회에도 배포하는 신문입니다.

시·도 조합 홍보 담당께서는 조합행사, 조합원 선행 기사, 이사장님의 동정 기사를 편집 마감 전까지 보내주시면 매호마다 16개 시·도 조합 소식을 균형있게 편집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낼 때는 사진 설명 꼭 기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개인택시조합  
라이브 인터뷰

인천조합 김승일 이사장

# “조합원 업권 보호 위해 존재, 소통하는 조합 만들 것”

‘카드 수수료율 인하·인천공항 공동사업구역 폐지’에 올인



인천개인택시조합  
김승일 이사장

전임 이사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서 보궐선거를 통해 2015년, 조합 지휘봉을 잡게 됐다.

지난해에 치러진 12대 이사장 선거에서는 46.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거는 곧 민심을 확인하는 절차다.

차점자와 압도적인 표차로 12대 이사장에 당선된 만큼 9000여 인천개인택시 조합원들의 경영과 복지 개선에만 매진하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여전히 조합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에 따른 파벌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마찰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인천조합)은 조합과 조합원간 갈등이 유별하기로 소문난 곳 중 하나다.

김승일 이사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했던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당시 조합과 조합원간 소송이 무려 19건에 달했다.

조합이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소송부터 이사장 당선 무효 소송, 택시 신용

카드 뵤사관련 소송 등 내용도 다양했다.

하지만 그 뿌리는 하나였다.

조합과 조합원간 신뢰가 부족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약했다.

그래서 김승일 이사장은 인터뷰 내내 조합원들과의 ‘소통’, 조합 집행부의 도덕적 리더십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 정관 개정 통해 조합 근원의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2004년 정관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인천조합은 낡은 정관을 유지 중이다.

‘정관(定款)’은 조합이 왜 존재하고 조합원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규정한 기본 규칙이다.

그런데 시대나 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해석이 모호한 조항들이 있어 정관 개정이 필요한데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로 여전히 구시대적인 정관을 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원들을 대신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총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내용들은 효력을 가져야 하는데 정관 규정 해석을 놓고 여전히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도 조합이 추진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다.

김승일 이사장은 “정관이 일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집행부의 도덕적인 바탕이 전제돼 운영됐다면 조합원들이 따라올텐데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현재의 정관으로는 조합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든 법적 근거를 둘러싼 시비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조합원 업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정관은 반드시 개정돼 조합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보장돼야 한다고 이를 위해 조합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방안중 하나로 김승일 이사장은 예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자료와 대의원 의결 사항 같은 조합 활동 대부분을 공고문이나 조합회보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인천조합 산하 모든 동호회와 연 2회 정

도는 간담회를 가지려 한다.

“현재 조합으로부터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 조합원 동아리가 약 150여곳, 비공식 동아리도 100곳 정도로 총 25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전체와 소통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동호회 창립이나 기념 행사에는 모두 참석하려고 노력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동호회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생각을 읽고 전달할 수 있는 집행부와의 의견 교환도 주기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높은 카드 수수료율 굴레에서 벗어날 것

김승일 이사장은 인천조합 현안 사안으로 ▲ 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 ▲ 인천국제공항 공동사업구역 폐지 ▲ 택시 공영차고지 활성화 ▲ 65세 고령운전자자격 유지검사제폐지 등 크게 4가지를 꼽았다.

먼저 첫 단추를 잘못 꿴 높은 효율을 적용받고 있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2.7% 수준의 카드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수수료 중 절반은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 김승일 이사장은 올해 1월 6일 유정복 인천시장(사진 왼쪽)과 면담을 갖고 어려운 개인택시업계 위해 인천시에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

있지만 초기 카드 가맹 과정에서 수수료율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면서 현재도 같은 효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일 이사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영세 카드 가맹점에 해당돼 0.8% 이하만 부과하면 된다”며 “현 카드 가맹 시장을 양분하는 이비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잘못 적용되는 수수료율의 틀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에도 개인택시 카드 단말기 설치 지원금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이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 운영되는 것을 폐지하도록 중앙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앞서 인천시는 5년 동안 매년 500대씩 총 2500대의 인천 개인 택시를 증차했다.

공항 개항으로 늘어나는 승객들의 원활한 수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였는데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가 훈령으로 인천 공항을 서울과 경기, 인천 택시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인천 유류 택시만 늘어나는 꼴이 되어 버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각 지역별로 배차 라인도 설정했다.

현재 인천공항 택시 점유율은 서울 택시가 60%로 가장 많고 김포나 부천, 고양, 광명 등 경기 택시가 20%를 점유하고 있다.

장을 위해 교통부가 국가 정책으로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만든 취지는 이해된다”면서도 “하지만 인천시에서 공항 개항에 앞서 2500대의 택시를 증차하며 충분한 택시 운송 인프라를 확대했고 과거와 달리 이제는 네비게이션을 통해 인천 택시들이 서울과 경기 권역 어디든 최단 경로로 안전하고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택시 공동사업구역을 유지할 정책적 명분이 없어져 국토부에 폐지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 인천 개인택시 복지 타운 밀그림 그리는 중

개인택시조합중 자체 사육이 없는 곳은 전국적으로 인천과 대구 뿐이다.

자체 사육을 갖는 것이 조합원 복지나 업권 신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일부의 지적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백여명의 조합원이 각종 행정업무나 공제조합 이용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데 마땅한 주차 공간조차 없이 협소한 현재의 사육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김승일 이사장은 택시발전 법령에 명시된 공영차고지 지원 규정에 착안해 개인택시 복지타운 건설 밀그림을 그리고 있다.

택시발전법에서는 지자체에서 공영차고지를 지정 설치할 때 국가가 택시공영



▲ 김승일 이사장이 2016년 6월 29일 인천시 교통연수원에서 이사, 대의원, 감사 등 조합 임원진과 인천시 건설교통국장, 택시화물과장 등 지자체 간부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개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김승일 이사장은 정관의 합리적 개정이 이뤄져야 조합원들의 업권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 김승일 이사장은 올해 3월 14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내 국토교통부 앞에서 65세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 도입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조합 이사진이 함께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김승일 이사장은 국토부 담당 국장과 면담하고 검사제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영차고지 통한 복지타운 큰 그림도 그려  
합리적 정관 개정 돼야 조합 본연의 역할 할 수 있어



▲ 지난 3월 7일 인천시 계양구 교통연수원에서 열린 인천개인택시조합 12대 김승일 이사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승일 이사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원 업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 사항을 잘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작 인천 택시는 2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김승일 이사장은 “외국인을 비롯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외 택시 승객들의 원활한 이동권 보

차고지 설치와 관련한 자금 등을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중앙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자체의 택시 공영 차고지 설치를 지원할 것인지는 하부 법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김승일 이사장은 법과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개인택시 공영 차고지 건설을 지원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 예산 지원에 앞서 인천시가 공영차고지 부지나 설치 자금 등을 먼저 자체 지원하게 된다면 차고지 안에 조합 사육은 물론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새마을 금고, 자동차 관련 각종 소모부품 교체 공간, 복지 충전소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승일 이사장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타이어나 엔진오일 교환 같은 소모품은 조합에서 공동구매해 값싸게 공급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주문이 많은데 협소한 현 사육 부지의 한계로 각종 부품을 보관하고 교체할 공간을 마련할 수 없다”며 부품 교체 작업 공간은 물론 복지충전소도 도입해 LPG도 값싸게 공급할 수 있는 복지타운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인천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택시지원 조례를 운영하는 인천시가 법인택시운전자는 근로자로 해석해 법인택시는 재정 지원하면서 개인택시는 사업자로 분류해 제외되는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규정을 추진하고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택시 주정차를 금지하는 규정의 불합리성도 국토부 등에 꾸준히 문제제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김승일 이사장에게 현재 가장 큰 마음속 숙제가 무엇이냐고 다시 물었는데 ‘인천조합이 9000여 모든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합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조합원들의 업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신장시키는데 있는데 조합원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김승일 이사장은 자신을 포함한 집행부가 도덕적 바탕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김신)

www.klpg.or.kr

# 깨끗한 내일을 위해 부르릉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청정 에너지  
더 힘찬 자동차를 만드는 파워 에너지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그린 에너지  
우리에게는 LPG가 있습니다

Clean Energy, Clean Tomorrow

 **대한LPG협회**



## 경기조합 이천시 조합

# 주차장·사무실 마련... 조합업무, 차량정비 휴식까지 원스톱

### 콜비없는 콜센터 운영, 행복한 택시문화 창조



경기조합 이천시 조합  
이상인 조합장

‘이천 개인택시가 행복한 택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이상인 이천조합장이 꿈꾸는 이천조합운영 목표다.

이천 조합은 시로부터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은 331명의 개인택시 사업자가 1명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 조합에 가입한 모범조합이다.

이천조합은 1993년 정현수 초대 조합장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8대 조합장으로 이어오면서 복지조합의 틀이 조금씩 다져졌다.

#### ◆ 콜택시 도입으로 운수환경 확대

2013년 1월에 7대 조합장에 취임하여 8대 조합장까지 연임하고 있는 이상인 조합장은 이천조합을 행복한 택시 문화의 산실로 만들고 있다.

1994년에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 이천조합원으로 입문하여 모범회장, 조합사무장을 역임하면서 조합장의 역량을 키워온 이 조합장은 2013년 7대 조합장에 취임하여 이듬해인 2014년에 택시문화를 변화시키는 첫 작업으로 이천시 브랜드 행복콜택시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이 조합장은 이천시청의 재정지원을 받아내려는 치밀한 계획으로 지역별로 분산돼있는 택시콜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운영주체에도 삼화운수, 삼양운수, 이성운수 등 법인택시 3사를 참여시켜 통합콜을 이끌어냈다.

이 조합장은 통합콜의 청사진을 들고 조병돈 이천시장을 만나 재정지원을 요구했다.

이천택시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행복콜 추진 명문에 조 시장은 흔쾌히 승낙하고 콜센터 설치 장소도 이천시 설봉로 122번지 공영주차장에 건물을 신축 제공하고 콜관제 시스템 구축예산과 콜에 참여하는 택시장비대 등으로 4억원과 1년 콜센터 운영비 2억 5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아냈다.

국번없이 1333번을 누르면 콜비없이 언제 어디서나 5분 이내에 배차를 받고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여성 고객을 위한 ‘안심서비스’, GPS를 이용한 배차 위치 확인까지 제공되는 행복콜은 시민들의 택시 이용습관을 편리하게 바꾸어 가고 있다.

또한 하루에 15콜 이상을 받는 콜택시는 조합원들의 운송수입 확대에 힘쓰고 있다.

이천 조합은 희망 콜택시도 추진, 2015년부터 이천시내 20개 농촌마을 공영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희망 콜택시는 군내 버스도 운행되지 않는 20개 마을을 선정해 이 지역 주민들은 버스 요금에 해당하는 1200원을 내고 목적지까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년이면 2억5000여만원의 시 예산이 택시비로 지원된다.

#### ◆ 조합사무실, 행복의 쉼터

이천조합에는 택시 이용 고객이 많은 하이닉스 공장이 입주해있고 시내를 통과하는 분당-여주선의 전철역사가 3곳이나 있어 전철 역사를 연계하는 택시 수요도 만만치 않아 다른 도시에 비해 택시 운송조건이 양호한 편이다.

그런데 조합원들의 주차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주차사무실은 조합원들의 숙원이었다.

조합원들의 숙원인 조합사무실 해결을 위해 골몰하던 이 조합장은 이천시가 1000평의 넓은 주차장에 건축한 3층짜리 본관 건물과 2층짜리 별관 건물을 임대 협상을 벌여 1년 임대료 300만원으로 성사시켰다.

사무실과 주차공간 확보를 일거에 해결한 이천조합은 3층 본관건물 1층을 조합원들의 행복쉼터, 2층은 모범운전자 사무실, 3층에는 조합사무실이 입주했다.

별관 건물 2층에는 행복콜센터 사무실, 1층에는 간단한 자동차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카센터와 제2행복쉼터를 꾸렸다.

간단한 운동기구와 안마의자가 설치된 행복쉼터는 조합원들의 건강활동과 휴식공간으로 조합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이천조합은 장호원읍에 상주를 하는 조합원들의 행복 쉼터로 오는 9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비록 셋집이지만 조합복지타운에 오면 조합업무, 차량정비, 진공세차, 휴식과 건강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작은 복지조합이다.

7대 임기중에 행복콜센터 추진, 사무실 이전, 조합 전 차량 블랙박스 교체, 카드단말기 설치 등 공약사항을 일궈낸 이상인 조합장은 8대 조합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성원해준 331명의 조합원에 대한 복지조합 완성을 해야 하는데 쉽게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머릿속에는 법인택시와 함께 공용차고지를 추진, LPG 충전소 건립계획까지 그리고 있다.

(글/그림·김관술)



▲ 조합업무, 차량정비 조합원의 휴식까지 원스톱 처리하는 이천조합 복지타운.



**탐방** (주)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 11개 복지충전소 묶어 LPG 유통기업 설립, 조합원이 주주

## 주식 공모·판매 장려금으로도 주주, 조합원 참여가 법인의 '힘'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이용제 대표이사

시장 경제에서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가 최고의 존재 목적이다. 그런데 복지를 최고 지향 목표로 설립된 주식회사가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이사장 이연수)이 최대 주주이고 조합원들을 개인 주주로 참여시키기 위해 설립된 (주)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대표 이용제)이 그런 회사다.

서울조합은 지난 2005년 '복지 제1 충전소'라는 이름으로 LPG충전소 사업에 진출한 이래 현재 총 11개 충전소를 확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계열 충전소를 한 데 묶어 경영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는데 조합원 신뢰도 부족 등을 이유로 결국 청산되는 운명을 맞았다.

하지만 서울조합은 올해 1월 또 다시 주식회사 형태의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설립을 의결하고 지난 3월 6일 설립 절차를 완료했다.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최선의 길을 찾겠다'는 이연수 이사장의 소신이 주식회사 재추진으로 이어진 것인데 다만 과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전문성은 강화했다.

서울조합은 복지충전소 사업에 오랜 기간 관여하며 에너지 경영 전문성을 쌓아 온 이용제, 노동조합 조합원을 각각 대표이사하고 LPG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총 300억원 규모의 자본금 중 51% 수준인 153억원은 서울조합에서 이미 출자했고 나머지 49%는 서울 조합 산하 5만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게 된다.

주식 한 주당 액면가는 500원인데 조합원들은 복지충전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립된 판매장려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 충전소를 이용해 복지 충전소 장려금이 없는 조합원들도 주식 공모 과정에 참여해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주주가 될 수 있다.

### ◆ 소유 전환으로 임차료 비용 줄이고 조합원에 배당

서울개인택시 산하 충전소는 총 11곳인데 이중 조합 소유는 복지마곡충전소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충전소는 모두 개인이나 LPG 공급사에서 임차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전소 한 곳 당 십수억원의 보증금과 매월 수천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제 대표는 "주식회사 설립으로 마련된 조합과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서울 4대문 이내 도심 위주로 운영 충전소 수를 늘리고 임대 위주에서 소유 방식으로 충전소 경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접근성이 높은 곳에 복지 충전소를 늘려 택시 사업자들의 LPG 충전 환경을 개선하고

충전소 임대료 지출을 최소화시켜 주주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다.

조합원들은 물론 일반 LPG자동차들의 복지 충전소 이용 확대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일환으로 공릉과 신정, 노원충전소에는 이달 중 편의점을 입점시켜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계열 충전소 매출 중 일반 차량이 약 20% 수준을 차지하는데 조합원들과 달리 LPG 구매 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반 LPG차량 이용이 늘수록 충전소 수익이 증가하고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장려금도 커지는 구조다.

### ◆ 복지 충전소 적극적인 이용, 조합원에 혜택 돌아간다

이용제 대표는 주식회사 설립을 전환점으로 더 많은 조합원들이 복지충전소를 이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서울개인택시조합원은 약 5만명 수준인데 이중 절반 정도만 복지충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쟁 관계인 일반충전소가 복지충전소 보다 조금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때문으로 파악되는데 각종 오일교환이나 주식 배당금 등을 감안하면 복지충전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자신했다.

이용제 대표는 "조합에서 엔진이나 미션오일 같은 소모품을 싼 가격에 공동구매해 복지충전소에 공급하고 오일 교체시 공임은 조합에서 지원해 조합원들은 원가에 소모품을 교체할 수 있어 상당한 차량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충전소 판매량이 늘어나고 LPG 공급사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돼 구매

단가가 낮아지고 수익이 늘어나면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주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배당금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주식회사 형태 운영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자신했다.

주식회사 전환으로 직원이 늘어나면서 일부 인건비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겠지만 조합과 조합원 출자금으로 외부 차입 등을 대체해 금융 비용은 줄이고 충전소 임대차 계약을 개선하며 LPG 공급사로부터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경영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시키면 수익은 오히려 개선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주식회사 전환으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면서 경영 투명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자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유 주식을 매년 자산 평가해 주당 가치를 산정하고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도하거나 주식 매도를 희망할 경우 조합에서 매입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편 서울조합 계열 전체 복지충전소 연 매출은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에 달하고 있다.

웬만한 중견 기업 수준의 매출 규모인데 조합원들이 주주이자 구매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면 조합원들이 얼마나 힘을 실어 주느냐에 따라 주식회사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의 매출과 이익은 현재에 비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개인택시복지법인 노동조합 LPG사업본부장은 "조합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고 배당을 포함한 각종 복지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 회사의 경영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조합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도 중요하다"며 "복지법인 설립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조합원이 될 것이고 복지법인 경영진들은 조합원들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쟁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김신)



▲ 서울개인택시조합이 계열 충전소 운영 전문 법인을 설립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법인 소유 복지마곡충전소 전경.

자원봉사대 탐방

서울 강서 까치 자원봉사대

## ‘위안부 할머니께 어떻게 택시요금을...’

## 22년간 무료 봉사



▲ 강서 까치자원봉사대원이 서울시립강서법인복지관과 독거노인들의 나들이 행사를 벌이는 모습.



▲ 문용길 대장.

## 무의탁 독거노인·장애인 병원 길에 손과 발 되어줘

누군가를 돕는 것은 의외로 사소한 계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의 목숨을 내걸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구한다거나 하는 거창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사회 봉사 활동이 위대한 것은 그 순수성과 지속성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6년 창립돼 올해로 22년째를 맞는 ‘개인택시 강서 까치봉사대’는 주로 독거 노인과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개인택시 봉사 단체다.

서울 강서구는 소형 임대 아파트가 많아 무의탁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거주 비중이 높은 편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외출 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분들중 일부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20년 넘는 역사의 강서까치봉사대의 출발이 됐다.

“손님으로 병원에 모시는 과정에서 위안부로 동원된 아픈 역사를 듣게 됐고 그 분께 택시비용을 받을 수 없겠다는 작은 마음이 봉사대의 출발이 됐고 그런 마음들이 모여 현재 100명이 넘는 봉사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문용길 대장은 설명했다.

## ◆ 매월 1만원씩 회비, 봄에 꽃·가을에 단풍 놀이 모서

까치봉사대는 자신들의 개인택시승용차로 몸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들의 병원 치료에 동행하는 봉사 활동을 주로 벌이고 있다.

강서구에 거주중인 위안부 할머니나 사할린 이주 동포 노인분들이 주요 대상인데 약 100 여명의 봉사대원들은 한달에 평균 2~3차례 정도 봉사 활동을 벌인다.

이들 운행 한 후 찾아 오는 꿀맛 같은 휴무일에 봉사대원들은 병원행이 예약된 강서구 거주 노인분들을 순번 따라 지정받아 무료로 모신다.

강서구를 벗어나는 곳에 위치한 병원이라도 상관없다. 기억력이 떨어져 깜빡 깜빡 하는 노인분을 위해서는 치료 당일 예약 사실을 유선으로 알려드리고 집 앞까지 찾아가 병원까지 동행해 진료 과정을 지켜보고 다시 귀가시키는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하루의 대부분이 소요된다.

그 과정에서의 차량 연료비도 봉사대원 자가 부담이다. 이와는 별도로 매월 1만원씩의 회비도 걷어 봄에는 꽃구경, 가을에는 단풍 나들이에 모신다.

소문이 퍼지면서 관할을 벗어난 곳에서도 봉사 지원을 요청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 거주중인 고령의 보훈공로자들을 초청하는 행사에 참석 대상자들이 택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받을 만큼 지명도도 높다.

매년 수능시험 당일에 영입 개인택시는 물론 휴무택시 까지 모두 나서 강서구 관내 전철역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수험생을 무료 수송하는 봉사 활동은 봉사대 창립 이래 현재까지 빼놓지 않은 연례 행사로 열리고 있다.

## ◆ 장애인 복지 택시 아이디어도 제공

전국 유일한 개인택시 무료 수송 봉사 활동은 장애인 복지 택시 모델이 되기도 했다.

고건 서울시장 시절, 강서 까치 봉사대 활동을 눈여겨본 고건 시장이 노령자나 장애인들의 복지 수송을 확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묻자 문용길 대장은 ‘자원 봉사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장애인 전용 복지 택시를 제안했고 서울시가 도입한데 이어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다.

현장의 봉사 경험이 복지 정책 아이디어로 연결된 셈이다. 오랜 세월 모셨던 무의탁 독거 노인분 중에서는 사후(死後) 장례도 봉사대에 의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신

상주가 되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

수년 전에는 영면에 드신 위안부 할머니 상주가 되어 강서구청과 공동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

서울시를 포함해 봉사 활동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하는 곳도 적지 않은데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다.

‘봉사대 활동은 수송 수단인 개인택시 그리고 봉사자가 부담하는 약간의 연료비용과 시간만 할애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비용 지출 등과 관련한 까다로운 증빙 서류 등을 챙겨 보고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 뺏기는 시간과 비용을 봉사에 쏟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원들의 생각’이라고 문용길 대장은 설명했다.

사회 봉사의 진정성과 기여도를 인정받아 각종 단체 등에서 상을 받기도 하는데 지난 2010년에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주최하는 ‘제22회 아산상’ 대상에 선정됐고 당시 받은 1000만원의 상금으로 강서구 독거 노인들에게 쌀을 사서 기증했을 정도로 순수 봉사를 지향하고 있다.

한 달 한 차례 열리는 봉사대 월례 모임의 식사 비용도 대원들이 각출하며 봉사를 위해 적립된 예산은 철저하게 봉사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강서 까치 봉사대 최고령 개인택시 사업자는 76세이고 70세 이상인 대원도 여러 명이다.

“봉사대 막내 빨인 40대 개인택시 사업자도 4명이나 됩니다. 제가 봉사대에 첫 발을 담겼던 그 나이 또래들이지요. 그 이후 20여년 동안 제가 나눔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 처럼 막내 대원들은 봉사대를 지키고 또 다른 막내 대원들이 그 바통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1997년, 40대 중반 나이로 봉사대에 합류해 이제 60대 중반이 된 문용길 대장은 개인택시가 존재하는 한 강서까치봉사대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신)

# 2017년 주요 사업 추진실적

##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료 부가가치세 면제)

연합회는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택시의 공급과잉에 있으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도 택시감차를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여 택시문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이에 따른 낮은 감차보상 기준 등으로 인하여 택시감차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구인 안호영의원에게 건의하였던 결과 우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법률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다.

택시업계는 경기 침체 및 이용 수요 감소 등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바, 부족분을 택시 업계가 모두 부담하게 될 경우 택시 감차 보상사업의 추진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감면세액을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확보하여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내용으로 안호영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표발의	주요 내용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10인) (2017. 07. 05)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연료(LPG 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2021년 12월 31일)하고, 감면세액을 택시 감차보상재원으로 확보하여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것임

## 2 제19대 대선 정책공약 채택 적극 추진

연합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에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 택시감차보상 재원확보를 위한 택시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 개인택시 차량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기간 연장 ▲ 택시 자격유지 검사제도 도입 철회 등을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여·야 제19대 대통령 대선 정책공약 중 택시와 관련 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공약

노동존중 사회 실현

# 11 30만 택시운전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농어촌 등 낙후지역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 택시 적극 지원

■ 수소차, 전기차, LP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연료 다변화 지원

■ 택시운전자 근로복지 지원

- 통합 택시 운전자 관리시스템 구축
- 택시 근로자 복지재단 지원 확대
- 장기 운전자 근골격 질환, 전립선 질환 등 본인부담금 경감방안 마련
- 택시운전자 쉼터 및 편의시설 확대

■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지원

■ 택시 고령운전자 자격유지 검사제도 불합리점 개선

■ 운송비용 전기금지, 신고포상제 도입 등 택시업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가동

### ◎ 자유한국당 정책공약위원회

《 개인택시 관련 정책 》

1)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

-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7%, 티머니(T-money) 선불카드의 경우는 1.5%임.
- 이는, 2억 미만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8%, 2억~3억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1.3%인 것에 비해 높게 적용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구조임.
- 또한, 현재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개인택시사업자와 카드사간 단일구조가 아니라, 한국스마트카드(대표가맹점)를 거치는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영세사업자 대상 카드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임.
- ※ 결제 수수료 1.7% 중 카드사 몫: 0.9%, 한국스마트카드 몫: 0.8% 배분
- 자유한국당은 개인택시 기사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최대 1.7%에 달하는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대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겠음.
- 1%대 수준(1.0~1.3%)으로 인하여 전국 약 16만5천대에 달하는 개인택시기사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 ※ 부산시는 개인택시 카드수수료를 영세사업자 기준인 0.8%로 낮춤

2) '택시자격유지검사제' 도입 관련

-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요즘 크게 걱정하고 있는 '택시자격유지검사제' 도입 관련,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음.
- 이에, 자유한국당은 '택시자격유지검사제'의 일방적 추진 전면 중단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3 승합대형택시 군 지역 포함 즉시 시행 건의

연합회 등 택시 노·사 4단체는 13인승 이하 대형택시(이하 '승합택시') 도입으로 택시서비스의 다양화와 택시업계 경영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군지역이 제외되고 특별시·광역시 외 사업구역은 2019.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승합택시의 도입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면서 택시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키로 했던 것으로 승합택시 도입 대상에서 군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당초 도입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군지역의 고령자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택시를 이용한 여객수송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승용자동차에 비해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운행효율이 높음에도 승합택시 도입 대상에서 군지역이 제외되어 보다 나은 택시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농어촌 등 낙후지역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 택시 적극 지원” 및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지원” 등이 포함되었기에 군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승합택시 즉시 시행을 건의하였다.

### ◎ 승합택시 군지역 포함 즉시 시행 건의

□ 현 황

- 대형택시 구분기준에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13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하는 법령 공포(2016.2.23.)
- 군지역은 제외하고, 특별시·광역시는 '공포한 날'부터, 그 외 사업구역은 2019.1.1.부터 시행
- 제19대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농어촌 등 낙후지역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 택시 적극 지원” 및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지원” 반영

《 지자체별 공공형 택시 현황 》

지역	시행 지자체	명 칭	요 금
울 산	1개군	마실택시	1,000원
강 원	13개 시·군	희망택시	1,000~1,200원
충 북	11개 시·군	행복택시	100~1,300원
충 남	16개 시·군	희망·100원·마중 섬김·마을 택시	100~1200원
전 북	4개군	통학·마을 500원 택시	500~1000원
전 남	21개 시·군	100원·마중·행복·효도·마을 해남사랑·쿠폰·군민행복 택시	100~1000원
경 북	14개 시·군	100원·희망·행복택시	100~1500원
경 남	14개 시·군	희망·100원·행복·마을·한방 부르미 택시	100원~1300원

□ 문제점

《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유발 》

- 10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대형택시(이하 “승합택시”) 도입은 정부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에 대하여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라 택시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추진키로 하였던 것
-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관계법령이 2014.10.15일 공포·시행
- 그러나 당초 택시업계와의 약속과 달리 버스업계의 반대에 따라 승합택시 도입 지역에서 군지역을 제외하고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2019.1.1.일 이후 시행토록 수정되는 등 당초 논의과정에서의 도입취지가 변질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야기

《 형평성의 문제 》

- 2016.4.21.일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심야시간 수요맞춤형 한정면허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에 한정함으로써 특별시·광역시 이외 지역은 시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제기
- 특히,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지역은 서울과 동일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전에는 한정면허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심야시간의 승객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에 따른 택시업계 경쟁력 약화 》

-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 대하여 운전자 알선을 허용함으로써 관광지 등에서 렌터카 불법행위가 발생
- 특히 일부 섬지역 등 관광지의 경우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운전자가 상주하여 택시영업을 하는 등 렌터카의 불법영업 및 운전자 불법 알선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군지역 관광지에서 렌터카 및 밴화물 등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승합택시 도입 필요

《 농어촌 지역의 승합택시 도입 필요 》

- 오지지역의 고령자들의 교통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택시를 이용한 여객수송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 ※ 2017.3월 기준 전국 94개 시·군에서 시행 중
- 지역에 따라 승용자동차에 비해 승합자동차의 운행이 보다 효율성이 높은 경우가 있음에도 차량 규제로 인하여 도입이 불가능
- 10인승 이하 대형택시의 경우 차량 구조상 내부가 협소하여 승객 승하차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특히 고령자의 경우 승하차 시 안전사고 등이 우려
- 또한 최근 KTX 등을 이용한 관광객의 증가로 군지역 단체 관광객의 승합택시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합택시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렌터카, 전세버스 등에 승객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
- 각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승합택시 운영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할 필요

□ 버스업계 반대의 문제점

- 버스는 일정한 노선을 일정한 운행시간에 따라 운행하는 노선여객운송사업으로써 정해진 사업구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는 택시와는 전혀 그 역할과 성격이 다름
- 농어촌 버스의 재정지원 중단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승합택시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그동안 아무런 경쟁상대 없이 국민의 혈세로 사업을 독점해 오던 버스업계의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한 것으로 합리적 반대로 볼 수 없음
- 농어촌 버스와 승합택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교통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건의사항

- 제19대 대통령 공약사항에 “농어촌 100원 행복택시 등 공공형 택시 적극 지원” 및 “군지역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도입 지원” 반영
- 군지역 승합택시 도입 허용은 대통령 공약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
- 13인승 이하 승합택시 운행지역에 군지역을 포함하고 특별시·광역시 외 사업구역도 즉시 시행

# 공제 미지급가입금의 환급

## 공제 가입금 조합원 자격 상실 시 환급 가능 해당되는 前 조합원, 해당 지부에 확인 요망

개인택시공제조합의 공제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3만원의 가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한 가입금은 공제조합 본부에서 적립·관리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지 및 양도되어 상실한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가입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사업조합을 비임의 탈퇴하거나 다른 손해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 양도 및 사업조합을 비임의 탈퇴 하거나 손해보험사의 이탈 이후 공제조합에 통보하지 않아 미지급가입금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후에 비로소 뒤늦게 인지한 공제조합은 해당조합원에게 바로 가입금 지급안내문을 송부하고 유선통화를 실시하는 등의 여러 방법을 시도하여

가입금을 환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락처가 변경되고 소재지가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된 일부 전 조합원은 해당조합과 연대 및 지인협조를 통하여 변경된 연락처와 소재지를 파악하고는 있으나 매우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입금의 지급사유가 인지되는 즉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은 지급업무를 간편화 하였고, 또한 연락처와 소재지가 함께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됨으로써 장기간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하여 교통정보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가입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조합원에게 가입금을 환급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조합원자격이 상실되고 가입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의 전 조합원은 해당지부에 가입금 환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 6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 모르면 벌금 세레

- ① 단속카메라를 통한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 기존
    - ▲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중앙선 침범 ▲ 주정차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중앙선 침범 ▲ 고속도로 갓길 통행 ▲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 교차로 꼬리물리 위반 ▲ 끼어들기 위반
  - 추가되는 것
    - ▲ 지정차로 위반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오토바이 보도침범 ▲ 적재물 추락 장치조치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단속카메라에 적발되거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고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② 운전자가 없이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③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거나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하는 지점이 기존 '후방 100m'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조정됐습니다.
- ④ 어린이 통학차량도 운행뒤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눈에 대한 바른생각

# 강남서울밝은안과

GANGNAM SEOUL BRIGHT EYE CLINIC

## 눈에 대한 바른생각

강남서울밝은안과에서 드리는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회원 및 가족을 위한 특별 우대 혜택**

**이벤트 기간 2017.07.03 ~ 2017.08.31**

담당자 | 박상현 이사  
 연락처 | 02) 557 - 5015  
 핸드폰 | 010 - 6775 - 5015

\* 대표번호 예약 및 내원비용 상담시 안과 담당자와 회사명(기관)을 말씀해주셔야 혜택이 적용됩니다.

정직한 진료,  
 안과전문의 박형직 박혜영이 직접 진료합니다.

“백내장은 조기발견과 안전한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항목	정상수가	제유가	특별우대가	비고	
일반 라식·라섹	스마트 라식	200만원	130만원	90만원	[무상지원]
	스마트 라섹	120만원	90만원	60만원	
첨단 레이저 라식	Z4라식	240만원	150만원	130만원	종합안검진 (71가지)
	Z4프리미엄 라식	280만원	180만원	150만원	
	옵티라섹	180만원	120만원	100만원	
	플라세렘 라섹	230만원	150만원	120만원	
노안교정	4050 노안교정 (올레이저)	250만원	180만원	130만원	자가혈청 (PRP무상지원)
	노안&백내장	담당자 문의 (백내장 수술은 실비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백내장 (단안가격)	일반 단초점 백내장	30만원	18만원		초음파 백내장 수술
	일반 다초점 백내장	300만원	250만원		
	레이저 단초점 백내장	100만원	60만원		카탈리스 3D 백내장 수술
	레이저 다초점 백내장	380만원	350만원		

\* 백내장 수술은 실비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실비보험 적용 시 정상가로 적용됩니다.)  
 \* 개인의 눈상태에 따라 렌즈 종류가 달라지며, 정밀 검사 후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명시된 수술방법 외에 다른 수술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 맞춤형 프리미엄 이디자인 라식/라섹, 렌즈삽입술(CI)은 정밀 검사 후 특별우대가로 안내해드립니다.



## 강남서울밝은안과의 특별한 혜택!

- 01 1:1 전담진료 (특진)
- 02 71단계 안구정밀검사 지원
- 03 책임 관리 시스템
- 04 PRP (자가 혈청 안약\_특별요인원 지원)
- 05 하프데이 원데이 라식, 라섹 수술
- 06 라식, 라섹 보증서 발급
- 07 카드 무이자 할부 2~5개월



### 오시는길 & 진료시간

월 ~ 목 10:00 ~ 18:30  
 금요일 10:00 ~ 21:00 (야간진료)  
 토요일 09:30 ~ 16:30  
 점심시간 13:00 ~ 14:00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신논현역 방향

역삼역 방향

국기원 입구 사거리

강남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 미진프라자 18층  
 강남서울밝은안과

양재역 방향

2호선 & 신분당선 강남역 1번출구 오른쪽 건물 미진프라자 18층

공제경쟁력을 말하다

# 보상직원 의료연수중급과정 교육 이수

## 교통사고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유형 분석 토론

공제경쟁력 강화와 보상직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의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보험연수원에서는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을 포함한 육운공제조합 합동으로 의료연수중급과정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육운공제 직원 총 48명이 교육에 참석했으며,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전국 지부에서 교육 대상으로 9명의 직원이 선발되어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3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지관절 및 말초신경계 손상, 하지관절 및 말초신경계 손상, 두부손상, 척추 및 척수손상의 과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과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번과정은 의료연수과정 중에서도 중급으로 분류되는 과정으로써,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 직원의 경우에는 신규직원연수과정, 대인보상실무과정, 의료연수초급과정의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만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연초 수립된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수준별, 단계별, 개인별 철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수준은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결코 쉽지 않은 수준의 강의를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편성된 신경계 손상, 두부손상, 척추손상 등은 자동차사고 시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큰 신체부위로 공제금 산출 시 정확하고 세밀한 의료지식이 반드시 밑바탕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 매 과목의 강의 때마다 유형분석의 시간을 별도로 편성하여 교통사고 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신체손상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강사가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각 조별로 분석 및 발표의 시간을 진행하면서 똑같은 신체손상에 대해서도 분석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음을 깨닫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료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육생들에게 다시금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교육과정에서 또한 신체손상에 대한 최신 치료법들이 주제별로 소개되어 교육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의학기구와 치료약의 발달로 같은 증상에 대해서도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치료법이 다양해질 수 있으며, 이처럼 다양해져가는 치료법에 대해 인지하는 것은 아무리 기초적인 의료지식이 있는 보험사나 공제조합의 직원들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아닌 이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하고 불필요한 진료로 인해 공제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신 치료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이러한 직원들의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주고자 최신 치료법에 대한 강의를 매 시간마다 편성하게 되었다.

3일의 일정 후 진행된 평가에서 개인택시공제조합의 9명 직원들은 모두 합격하여 수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전체 교육생 48명 중 과정평가 1등인 최우수상을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 직원이 차지하여,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2017년도 어느새 중반을 지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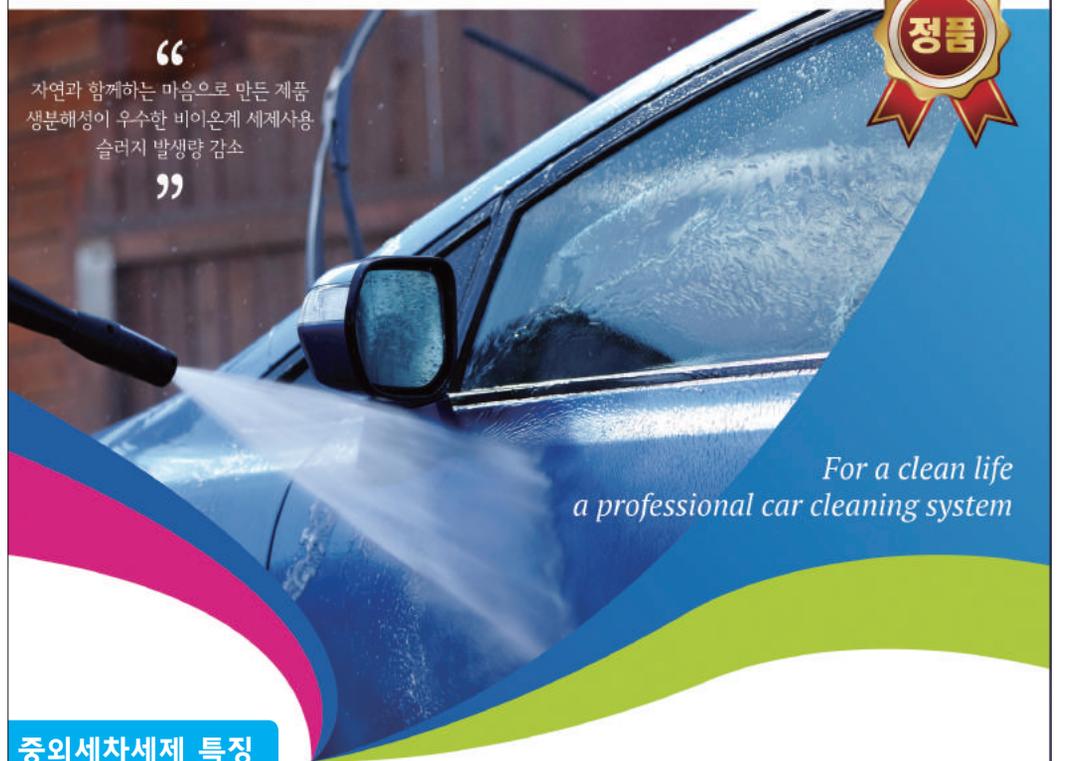
공제 경쟁력 강화와 최고의 공제조합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개인택시공제조합의 힘찬 행보가 동력을 잃지 않고, 올 한해 끝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금번 취재를 마무리했다.



▲ 육운공제조합과 함께 보상과 직원 등 48명이 3일 일정으로 교육을 받았다.

### 중외산업 최고급 자동세차기용 세제 국내 최고 조건으로 공급하겠습니다.

JW Industrial



#### 중외세차세제 특징

- |  |  |   |  |
|--|--|---|--|
|  |  |   |  |
| <p><b>중외 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부한 거품효과로 세척력이 우수하고 헹굼이 용이합니다.</li> <li>· 생분해성이 우수하고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폐수처리가 용이합니다.</li> <li>· 도장보호 효과와 부드러운 윤활작용으로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 해줍니다.</li> </ul> | <p><b>중외 샴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의 오염물을 깨끗하게 제거, 유지하고 왁스 피막 내구성을 중대시켜 줍니다.</li> <li>· 생분해성이 우수하고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폐수처리가 용이합니다.</li> <li>· 어떤 종류의 물에도 사용이 쉽습니다.</li> </ul> | <p><b>중외 왁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체에 광택을 주며, 산성비 먼지 등으로부터 도장을 보호해줍니다.</li> <li>· 특수한 계면활성제 함유로 신속건조 및 물기제거 효과가 뛰어납니다.</li> <li>· 생분해성이 우수하고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폐수처리가 용이합니다.</li> </ul> | <p><b>중외 드라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력한 보호막이 형성되어 부식방지 효과 및 광택이 우수합니다.</li> <li>· 물기를 신속하게 건조시켜 표면의 광택을 오래 유지합니다.</li> <li>· 도장의 보호효과가 우수합니다.</li> </ul> |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겠습니다. 중외산업 개인택시연합회 특판사업팀  
문의전화 : 010-7322-4658



## 택시 전용차 신차 출시 특집

# - 현대 -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택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 현대차 쏘나타 뉴 라이즈-택시, 중형차 택시 시장 대변화 예고!

현대자동차는 디자인, 편의사양, 성능 3가지 등 모든 측면에서 대폭 향상시킨 쏘나타 뉴 라이즈-택시를 본격 시판에 돌입한다.

쏘나타 뉴 라이즈-택시는 신차급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쏘나타 뉴 라이즈’ 모델에 택시 운전자와 승객의 편의성을 극대화 시킨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쏘나타 뉴 라이즈’의 차명은 ‘새로움’을 뜻하는 ‘뉴(NEW)’와 ‘부상(浮上)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라이즈(Rise)’가 조합된 것

으로 주행성능, 안전, 내구성 등 자동차의 기본기에 강한 쏘나타가 기대 이상의 상품성을 갖춰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고객 앞에 등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쏘나타 뉴 라이즈-택시는 2세대 6단 자동변속기를 기본으로 적용하여 최고출력 151마력(ps), 최대토크 19.8kg·m의 강력한 동력성능과 복합연비 9.5km/ℓ의 공인 연비(자동변속기 기준)로 중형택시 최고 연비를 확보했으며 사시계열 성능 강화로 승차감 개선, 차체 하부 주요 구성품의 방청강화 등 주행과 관련된 모든 성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

쏘나타 뉴 라이즈 택시는 기존 쏘나타

뉴 라이즈의 혁신적 디자인 변화를 그대로 가져와 와이드한 캐스캐이딩 그릴 디자인의 적용과 풍부한 후드 볼륨의 조형으로 과감하고 스포티한 스타일을 구현했다.

특히 차량의 후면 부분은 범퍼, 리어램프, 번호판의 과격적인 레이아웃의 변화를 추진했으며, 엠블렘 일체형 트렁크 스위치 적용으로 클린하고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했다.

내부 인테리어에서는 직관적인 사용자 편의성 개선과 인테리어 고급감 강조에 초점을 맞췄다. 스포티하고 젊은 감성의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였으며, 오디오 스위치부의 입체감을 강조하여 기존 센터페시아의 평면적 이미지를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시간/장거리 주행에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체 부위별 체압 특성을 고려한 인체 공학적 설계로 주행시 단단하게 지지되어야 하는 부분은 더 단단하게, 힘을 받거나 기대는 부위는 더 폭신하게 만드는 등 신체 부위별 특성을 고려한 정교한 설계로 쿠션감을 최적화했다.

운전자와 승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편의 사양을 대폭 확대하였다.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8인치 내비게이션 선택 시 스마트폰과 연계되는 커넥티비티 안드로이드 미러링크, 애플의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원터치 공기 청정 모드를 탑재했다.

‘원터치 공기 청정 모드’는 고성능 에어컨 필터로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는 물론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산성가스(SOx-유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와 염기성 가스까지 흡착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탑승자 모두가 항상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실내를 만들어준다.

현대차 관계자는 “운전자와 탑승객은 안정적 주행성능과 다양한 편의사양의 적용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감성품질을 느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택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쏘나타 뉴 라이즈-택시의 가격은 ▲스타일(AT 기준) 1845만원 ▲모던 2070만원 ▲프리미엄 2278만원이다.



## - 기아 -

# “승객에게 퍼스트 클래스의 안락함 제공”

## 기아차 K7 택시, 운전자에게 더할 수 없는 드라이빙의 편안함 전달

K7택시는 어떠한 순간에도 편안함을 제공한다.

운전의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는 고급형 클러스터, 겨울 이른 시간에도 따뜻함을 전할 히트드 스티어링 휠, 8인치 내비게이션, 독립제어 풀오토 에어컨까지... 운전자의 편안함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깃들여 있다.

스티어링 휠에 히팅 기능을 적용해 따뜻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는 히트드 스티어링 휠과 8인치 광시야각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적용하여 시인성과 조작감이 뛰어나며 SD 카드방식으로 간편하게 지도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게이션(8인치/후방 카메라)을 적용했으며 폴딩 키 또는 스마트 키 언락 버튼 2회 작동 시 연료펌프를 미리 구동시켜, LPI 시동 대기 시간 단축으로 가솔린 엔진 수준의 시동성을 확보한 LPI 시동 대기 시간 단축 시스템(LSTR)과 폰 커넥티비티로 스마트폰과 차량 내비게이션을 USB 케이블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미러링크, 애플 카플레이

이 지원 기능에 한함)을 차량에서 사용 가능하게 하여, 안전하고 스마트한 드라이빙 라이프를 구현한다.

K7택시는 운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진가가 드러난다.

승객에게는 퍼스트 클래스의 안락함을, 운전자에게는 더할 수 없는 드라이빙의 편안함을, 다양한 편의 장비들이 교통 체증에도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한다.

장시간 운전하는 운전자를 고려한 시트로 운전자의 체형과 자세에 맞춰 탑승자가 원하는 자세로 시트의 높낮이 및 등받이 각도를 전동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운전석 파워시트 & 운전석 허리 지지대, 시트 내 통풍팬을 이용해 바람을 발생시켜 쾌적한 운전을 도와 드리는 앞좌석 통풍 시트 히팅 기능을 적용한 히트드 시트로 보다 안락한 드라이빙을 만끽하는 스마트 히트드 시트가 있다.

K7택시는 하루의

일터이기에 안전이 우선이다.

운전자를 위한 무릎 에어백과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까지, K7 택시에 있어 안전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기본이다.

충돌 시 상해가 예상되는 무릎을 보호하는 운전석 무릎 에어백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안전을 지켜드리며 9 에어백으로 충돌 시 탑승자의 측면을 보호하는 전복 감지 사이드 & 커튼 에어백을 적용하

여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 시스템(TPMS)으로 타이어의 압력을 센서로 감지하여 압력이 낮을 때 운전자에게 공기압이 낮은 타이어의 위치를 알려준다.

또한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으로 차량에 탑재된 센서로 장애물을 감지하여 거리별 경보음을 통해 안전한 주차를 돕는다.



- 르노 삼성 -

## SM7 택시, 르노삼성 택시부활 신호탄

### 르노삼성 SM7, 현장 의견 반영한 고급편의장치와 가성비로 무장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해 SM7 택시를 출시하면서 그 동안 현대 기아가 장악해 오던 영업용 택시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택시 시장에서 르노삼성은 지난 2010년 SM5 중형택시로 시장점유율 10%를 넘기기도 했다.

2015년 초 르노삼성은 택시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자체 개발한 도넛탱크를 적용하는 등 사용편의성을 대폭 강화한 SM5 노바 택시를 선보였으나 단일 차종

만으로 단시일 내 현대 기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뒷심이 부족했다.

그런 만큼 르노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SM7 택시 출시가 중형에서 준대형으로 이어지는 택시 모델 라인업을 완성함으로써 현대 기아와 정면 대결이 가능한 실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M7 택시는 지난 2013년 영업본부 부사장으로 영입되면서부터 줄곧 택시부문 영업 강화를 주장해온 박동훈 사장의 철학과 의지가 낳은 정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사장은 택시 영업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서 이를 제품 기획단계부터 적극 반영토록 했고, 그 첫 번째 결과물이 지난해 SM5 택시에 처음 적용돼 큰 반향을 일으킨 도넛탱크 기술이다.

르노삼성자동차가 200여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도넛탱크는 기존 트렁크의 절반을 차지하던 LPG 연료탱크를 동글납작한 행태로 바꾸어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탑재함으로써 그 동안 업계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였던 트렁크 공간 문제를 단번에 해소한 기술로, SM7 택시의 경우 경쟁 모델에 비해 1.6~1.7배 이상 더 넓은 트렁크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르노삼성은 이번 SM7 택시를 시판하면서 영업용에 특화된 각종 고급 편의장치를 대폭 적용하면서도 경쟁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가격을 책정했는데, 이를 통해 영업용 택시시장에서 부활을 꿈꾸는 르노삼성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SM7 택시는 또 동급 유일의 편의사양인 매직 핸들을 비롯, 전자식 파킹브레이크와 전자식 룸미러, 운전석 파워시트, 엔

진 버튼 시동장치, 레인센싱 와이퍼, 블루투스/핸즈프리 등 택시운전자의 감성을 자극할만한 운행 편의를 고려한 고급 장치들을 기본 사양으로 적용함으로써 뛰어난 가성비로 벌써부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르노삼성은 이번 SM7 택시 시판과 함께 SM5 택시까지 판매가 동시에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로 택시 시장 점유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택시의 경우 광고전시 효과와 구전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 승용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르노삼성으로는 SM7 택시 판매를 계기로 택시 부활이라는 명제에 공을 들일 수 밖에 없고 이를 통해 꺾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르노삼성은 택시 판매 확대를 위해 직관 인력의 보강과 함께 택시 정비서비스 체제 강화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영업용 택시 시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SM7 택시가 현대 기아의 철옹성을 깨고 신삼국지 시대를 개막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 GM 대우 -

## 쉐보레 말리부 상품성 강화 모델 판매 개시

### 신규 수요 충족 위해 생산 대폭 늘려, 적체된 미출고 물량 해소 기대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올 뉴 말리부(ALL NEW MALIBU)의 상품성 강화 모델 판매를 시작하며 신속한 차량 출고 및 고객 인도에 나섰다.

상품성을 강화한 올 뉴 말리부에는 신규 디자인의 차량 후면부 터보(Turbo) 레터링, 윈드실드 워셔 레벨링 시스템, 뒷좌석 열선 시트, 브링고 내비게이션 등의 사양들이 추가됐다.

쉐보레는 말리부 상품성 강화 모델 판매 개시를 기점으로 신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을 대폭 늘렸으며, 이를 통해 그간 적체되었던 미 출고 물량을 해소하는 한편, 최근 계속돼온 말리부의 내수 판매 증가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말리부는 2016년 4월 국내 출시된 이후 5월부터 9월까지 총 2만1015대가 판매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 7656대 대비 무려 174.5%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지난 9월 노사 간 교섭을 마무리함에 따라 쉐보레는 말리부의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출고 여건을 대폭 개선시켜

이달부터는 계약 후 출고 대기 기간을 1달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국지엠 영업·A/S·마케팅부문 데일 설리번(Dale Sullivan) 부사장은 “오랜 시간 동안 쉐보레 말리부를 기다려 주신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차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품성 강화 모델 판매 시작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계획돼있는 만큼,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내 고객들이 말리부의 월등한 가치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쉐보레가 지난 상반기에 국내 출시한 올 뉴 말리부는 준대형급보다 긴 전장 등 차 급을 뛰어넘는 크기와 최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다운사이징 고성능 기술인 터보 엔진의 파워풀한 주행성능, 최첨단 안전 및 편의 사양, 탁월한 가성비로 중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쉐보레는 상품성 강화 말리부 신형 모델에 대한 고객의 뜨거운 반응에 보답하기 위해 10월 한달 간 상품성 강화 모델 구입



고객 대상 콤보할부 프로그램 선택 시 20만원의 현금 할인과 4.9%의 60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말리부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1만 7천여대의 폭발적인 계약고를 올리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한국, 북미, 중국 등 출시된 지역에서의 꾸준한 인기를 바탕으로

로 최근에는 중동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시작하는 등 쉐보레의 글로벌 중형 세단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한편 쉐보레는 뛰어난 주행성능과 디자인, 능동 및 수동 안전 사양,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효율의 차량을 전 세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기대 이상의 놀라운 변화 쏘나타 뉴 라이즈-택시



## 혁신적인 스타일 개선

완전히 달라진 외장과 고급감이 개선된 내장 디자인



캐스캐이딩 그릴 & 세로형 LED DRL    편의를 고려한 인간공학적 설계

## 신규 편의사양 확대

택시 운전자와 탑승객을 고려한 편의사양 확대



8인치 내비게이션(폰 커넥티비티)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공기 청정 모드)

## 최고 연비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

新 변속기 적용으로 중형택시 최고 연비 확보



2세대 6단 자동변속기    혁신적인 차체강성

